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는 3.0

수신 수신처참조
(경유)

제목 2016년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설명회 개최 알림(5월)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처에서는 '14년 마약류 의약품의 유통·사용 투명화와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제조에서 유통·사용까지 마약류 의약품 취급 전정보를 전산적으로 관리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또한, '15년 마약류 의약품 보고 의무를 병원·약국 등에 확대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3. '16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향정신성의약품 시범사업 및 마약류 의약품 단계적 취급보고 시행 안내를 위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설명회(5월)를 불임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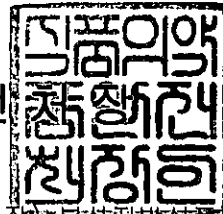
- 대상자 : 마약류취급자(병원·약국, 도매, 제약업체, 학술연구자 등), 마약류 취급 승인자(의약품 제조업자 등), 마약류 취급 공무원(지방식약청·시도·시군구) 및 유관협회 등
- 주요 내용
 -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취급보고 및 '16년 향정신성의약품 시범사업 안내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사용 교육 등
- 일시 및 장소 : 불임참조

4. 아울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의무화 대비 안정적이고 편리한 시스템 제공을 위해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자 대상 2016년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에 귀 기관의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병원·약국, 도매업체가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모집 기간 : '16년 4월 ~ 6월 (선착순)
 - 시범 보고 기간 : '16년 7월 ~ 11월
 - 신청 대상 : 프로포폴, 졸피뎀을 취급하는 병원·약국, 도매업체(1,000개소)
 - 참여자는 시스템 보고에 필요한 리더기(RFID/바코드 겸용) 지원(비용의 50%)
 - 문의전화 :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시범사업 상담센터(1670-6721)
- ※ 상세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 공고 및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www.drugsafe.or.kr 또는 www.nims.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붙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설명회 개최(5월) 1부. 끝.

식품의약품안전



수신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약품안전관리과장),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료제품안전과장),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료제품안전과장),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료제품안전과장),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료제품안전과장),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료제품안전과장), 서울특별시(보건의료정책과장), 부산광역시(보건위생과장), 인천광역시(보건정책과장), 광주광역시(건강정책과장), 대구광역시(보건건강과장), 울산광역시(건강정책과장), 대전광역시(보건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장(보건행정과장), 강원도지사(식품의약과장), 경기도지사(보건정책과장), 보건위생담당관, 경상북도지사(식품의약과장), 경상남도지사(식품의약과장), 충청북도지사(식의약품안전과장), 충청남도지사(식품의약과장), 전라북도지사(건강안전과장), 전라남도지사(보건의료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보건위생과장),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 대한의사협회장, 대한약사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중소병원협회장, 한국병원약사회장,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 (주)국전약품, (주)대웅제약, (주)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주)삼오제약, (주)서울제약, (주)종근당, (주)한국파마, (주)한독, 고려제약(주), 대원제약(주), 동국제약(주), 명문제약(주), 명인제약(주), 보령제약(주), 비브라운코리아(주), 영진약품공업(주), 초당약품공업(주), 코오롱제약(주),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주), 하나제약(주), 한국산도스(주), 한미약품(주), 환인제약(주)

주무관

한은경

마약정책과
과장

전결04/25

김성진

협조자

시행 마약정책과-6459 (2016-04-25) 접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001888(2016.04.26)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 / www.mfds.go.kr
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전화 043-719-2804 전송 043-719-2800 / pharmhan@korea.kr / 공개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정부3.0으로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